



숨 막히는 폭풍 질주

6일 오후 영암군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IC)에서 열린 '2013 포뮬러 원(F1) 코리아 그랑프리' 결승전에서 머신들이 출발선에서 힘차게 스타트해 서킷을 질주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F1 흥행·적자 줄이기 '두 토끼' 잡았다



'2013 F1 코리아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한 제바스티안 페텔.

16만명 구름관중...페텔 3년 연속 우승
FOM·전남도 갈등 노출 지속개최 우려

관련기사 2·3·14면

영암군 삼호읍 코리아인터내셔널 서킷(KIC)을 뜨겁게 달군 '2013 포뮬러 원(F1) 코리아그랑프리'가 6일 결승전을 끝으로 사흘간의 열전을 마감했다.

6일 결선 레이스에서는 제바스티안 페텔(인피니티 레드불)이 5.615km의 서킷 55바퀴를 1시간43분13초701에 달려 우승을 차지하면서 3년 연속 KIC 포디엄(시상대)의 맨 위에 서는 위업을 달성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F1 코리아그랑프리에는 지난해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16만명에 가까운 구름관중이 몰려 F1이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잡았음을 입증했다.

F1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KIC를 찾은 관람객은 4일(연승주행) 2만863명, 5일(예선) 5만8243명, 6일(결선) 7만9057명으로 3일간 15만 8163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누적 관람객 수 16만3000여명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지만 국내 단일 스포츠로는

줄이기 원년'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F1대회 조직위는 잠정집계지만 올해 대회 수입은 입장권 판매, 정부지원금, 식음료 및 탐방팀 판매 등 총 24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지출은 지난해보다 40% 가량 줄인 개최권을 포함해 460억원에 달하지만 아직 받지 못한 정부 지원금 50억원을 포함하면 적자폭은 170억원 규모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다. F1대회 적자폭은 첫해인 2010년 725억원, 2011년 610억원, 2012년 386억원이었다.

하지만 주관사인 포뮬러매니지먼트(FOM)와 전남도의 미묘한 갈등은 지속 개최를 위한 해결 과제로 남았다. 개최권료 협상 과정에서 사이가 벌어진 전남도와 FOM측은 공군 블랙이글스팀의 에어쇼를 놓고 8000만원의 보험료 납부 신경전을 벌였다. FOM측은 이와 관련 전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 코리아그랑프리는 대중 스포츠로서 입지를 확실히 다졌고 200억원으로 추산되는 F1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보다 적은 적자를 기록하는 원년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내년 대회 개최시기 등 일부 안건에서 FOM과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협상을 통해 해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소비세 증가분 지원, 취득세수 비율로 배분
서울·경기·인천만 늘고
광주·전남은 되레 줄어

정부가 지방소비세 증가분 지원을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세수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치단체 간 회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수 비율이 높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증가비율이 높은 반면 광주와 전남 등 취득세수 비율이 낮은 지역은 지원 축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안정행정부는 "지방소비세를 부가 가치세의 5%에서 2015년 11%까지 늘리기로 한데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지자체에 배분할 때 취득세수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최근 지방세의 27%를 차지하는 주택 취득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면서 올해 기준으로 광주 7000원 등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 적자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지방소비세 증가분에 대해 최근 3년간 취득세 비율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지자체별 배분 비율을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주택 취득세 축소에 따른 재정 보전이 목적인데다.

하지만, 취득세만을 기준으로 하면 증가 비율이 높은 수도권 자치단체만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을 정부안인 취득세 비율로 단순 계산했을 경우 서울은 15.5%에서 18.6%로 3.1%포인트, 경기 14.0%에서 26.7%로 12.7%포인트, 인천 3.0%에서 6.3%로 3.3%포인트가 증가하게 된다.

반면 광주는 3.2%에서 2.3%로 -0.9%포인트, 전남은 4.9%에서 3.4%로 -1.5%포인트 감소한다.

이 같은 감소율을 2012년 기준으로 정부의 지방소비세 배분액에 도입할 경우 광주는 977억원에서 700여억원으로 277억원이 줄고, 전남은 1494억원에서 1031억원으로 463억원 가량 줄어든다.

이에 따라 광주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들은 지방소비세 증가분에 따른 자치단체별 배분비율 계산 시 낙후도를 포함한 재정력 지수 등을 추가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진기기자hucky@kwangju.co.kr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
2013년 총동창회 체육대회

- 일시: 2013. 10. 13(일) 09:30
- 장소: 모교운동장
- 전화: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김성호

내년 F1, 4월에 열리나... 박지사 조기 개최 수용 시사

박준영 전남지사는 6일 "내년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4월에 개최하게 되면,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다"면서 "7년간 열기로 계약이 된 만큼 지속적으로 F1을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박 지사는 "올해 대회가 끝난 뒤 6개월 만에 내년 4월 대회를 치를 경우 마케팅과 대회 준비에 크고 작

은 어려움이 있지만 화창한 날씨 등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박 지사의 이번 언급은 4월 대회 수용 가능성을 열어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내년 한국대회 개최 불투명 지적에 대한 반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제자동차연맹(FIA)과 F1대회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세계모

터스포츠평의회(WMSC) 회의 결과 내년 한국 개최 일정을 4월 27일로 잠정 결정했다.

4월에 대회가 열린다면 국·도비 등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은 데다 기존 가을대회를 6개월 이상 앞당기는 과정에서 입장권 판매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돼 전남도가 그동안 이 안을 반대해 왔다.
/오영록기자kroh@

상상해보세요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피부

셀-바이오 과학으로 매일매일 맑고 매끄럽게- 헤라 셀 에센스

바쁜 생활 속에서도 매끄럽게 빛나는 피부를 놓칠 수 없다면 헤라 셀 에센스를 시작해보세요. 헤라는 셀-바이오 과학을 통해 피부 활성화의 핵심, 생체수를 모사한 셀-바이오 플루이드 싱크를 개발하였습니다. 생체수의 다섯 가지 비일코드(아미노산, 아미노산리피드, 슈거 펩타이드)를 연구한 헤라 셀 에센스-놀라운 피부변화를 느껴보세요*

*1일 사용 후 사용자 98%가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96%가 피부가 밝아지는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Cell-Bio™ 피부 동화 포몰라
일본 동경대학의, 구본인 연구실 통해 피부와 유사한 생체수 모사, 피부에 빠르게 동화되어 효과적인 피부변화를 선사합니다.

HERA

*유명백화점이나 이모레 카운셀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 090-023-5454(수신시 요금부담) www.hera.co.kr

*사용 직후 피부가 촉촉해지고 밝아지고/광28에서는 효과-2535 생체수 인체제를 실험결과(총 21명, 2013.5.29-6.20 (비타포토))
**1일 사용 후 피부가 매끄러워지고/광1에서는 효과-2847 생체수 인체제를 실험결과(총 60명, 2013.7.15-7.28 (비타포토))